

## 하서 김인후 시에 나타난 연락풍

김동하(서영대학교)

### <차 례>

- I. 머리말
- II. 연락풍 시의 개념
- III. 연락풍 시의 특징
- IV. 하서 연락풍 시의 특징
  - 1. 詩經의 風雅論
  - 2. 居敬宗經의 修養論
  - 3. 性理學的 宇宙論
- V. 맺음말

### <국문 초록>

하서 김인후는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성리학자로, 도학과 절의, 문장을 모두 갖춘 백세의 스승으로 추앙되며, 문묘에 배향된 유일한 호남인이다. 그는 특히 도학에 밝아, 해동의 주돈이요, 호남의 공자와 같은 인물로 칭송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시 문학 방면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도학적 내용을 담은 도학시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순수시 자체도 거의 도학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하서의 도학시는 송조5현을 중심으로 한 일군의 성리학자들에 의해 형성된, ‘시경의 풍아’에 근원을 둔 송시의 한 유파인 연락풍 시가 주류를 이룬다. 연락풍 시란 설리적 경향의 시로, 일반적인 송시와도 구별되는 독특한 특색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올바른 심성을 드러내는 시이고, 수양 과정과 유교적 가치관을 추구한 시이며, 천리를 따르는 사람의 마음을 노래한 시란 점이다.

하서는 전형적인 성리학자로서 ‘재도문학론’을 충실히 따르며, 성리학적 이치를 정제된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독자적인 문학적 성과를 이루었다. 하서의 문학 작품에 나타난 연락풍 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경’의 ‘풍아’를 시의 전형으로 여기며, ‘관저’편과 같은 주로 ‘주남’과 관련된 작품등을 독후감 형식으로 남겼다. 또한 경물시의 형식을 빌려 성정을 함양하고, 대자연의 이치를 발견해내는 도학자의 모습을 그려냈다.

둘째, 전형적인 도학자로서, 敬에 바탕을 두고, 유교의 경전을 독서의 대상으로 한 학문수양을 통해 평생 동안 성도지학을 추구했다. 경서 중에서는 특히 ‘小學’에 커다란 가치를 두었는데, 이는 스승인 모재 김안국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성리학 이론을 작품화한 경우, 대부분 주희의 理氣論을 따르고 있으며, 주렴계의 ‘태극도설’과 관련된 시나 인성론과 관련된 내용을 읊은 시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핵심어: 도학시, 연락풍, 풍아론, 거경종경, 수양론, 성리학, 우주론.

## I. 머리말

하서 김인후(金麟厚, 1510-1560)는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성리학자로, 도학과 절의, 문장을 모두 갖춘 백세의 스승(百世師表)으로 추앙되며, 문묘에 배향된 유일한 호남인이다. 일찍이 정조는, “나는 김하서에 대해 특별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도학, 절의, 문장을 모두 구비한 이는 유독 하서 한 분이기 때문이다.”<sup>1)</sup>라고 하였다. 또한 송시열은, “우리나라 인물 가운데 도학, 절의, 문장을 모두 지니고 치우침이 없는 이는 얼마 안 된다. 하늘이 우리나라를 도와 하서 김 선생을 태어나게 하였으니, 그는 거의 이에 가까운 분이다.”<sup>2)</sup>라고 하였다.

하서는 특히 도학에 밝아, “조선 왕조가 들어선 이후 맨 먼저 성리학을 천명하여 비로소 큰 근원을 찾고, 하늘과 땅 사이에 중니와 자양 두 사람이 있음을 안 유일한 사람이었다.”<sup>3)</sup>라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경전의 서에 있는 힘을 다 쏟고 낙민(洛閩)의 정맥에 침잠하여 성학의 본령에 나아가 큰 근원을 뚫어지게 보아 털끝까지 분석하여 후인에게 제시했으니, 그 개창과 지도의 거룩함은 우리 동방의 주례계.”<sup>4)</sup>라 칭송되기도 했다. “해동의 염계이자 호남의 공자”<sup>5)</sup>이며 “해동의 우뚝한 정학”<sup>6)</sup>이라 했으니, 우리나라의 뛰어난 도학자로 동방의 주돈이요, 호남의 공자와 같은 인물로 본 것이다.

하서는 도학과 절의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서너 살 때에 시구를 만들었는데, 그 의사가 깊고 멀며 기상이 넓고 커서 사람이 미치지 못할 바였고, 7, 8세 때에는 文名이 크게 떨쳤다.”<sup>7)</sup>라 할 정도로 어려서부터 남다른 문학적 재능을 나타냈다. 실제로 50년이란 짧은 생애에 무려 1600여 수의 한시 작품을 남긴 호남시단의 증추적 인물이었다. 그러나 하서는 ‘문학을 하나의 여기’로 여기며, 문장에는 반드시 도학적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채도문학관’을 견지한 전형적인 도학자였다.

하서 문학의 본령이라 할 수 있는 시 문학의 경우, 도학적 내용을 담은 도학시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순수시 자체도 거의 도학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서의 도학시는 송조5현을 중심으로 한 일군의 성리학자들에 의해 형성된, ‘시경의 풍아’에 근원을 둔 송시의 한 유파인 염락풍 시가 주류를 이룬다. 이 글은 먼저 염락풍 시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이어 구체적인 문학 작품을 통해 다른 성리학자들의 도학시와의 변별적 특성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 II. 염락풍 시의 개념

고려 말 송나라에서 성리학이 도입되면서 문학 방면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은 두 가지로

- 1) 『正祖大王實錄』 卷之四十四, “正祖曰 予於金河西別有起慕焉 夫道學也 節義也 文章也 無一不備者 獨河西一人矣.”
- 2) 宋時烈, 「神道碑銘」, 『河西先生全集附錄』 卷之一, “國朝人物, 道德節義, 文章或有品差其兼有 而不偏者無幾矣. 天佑我東, 鍾生河西金先生, 則殆庶幾焉.”
- 3) 『正祖大王實錄』 卷之四十四, “入我朝以後, 首闡性理, 始見大原, 天地中間, 只知有仲尼、紫陽二人, 即文靖一人而已.”
- 4) 李直輔, 「河西先生文集重刊跋」, 『河西先生文集』 卷之首, “肆力於經傳之書 沈潛乎洛閩之正脈 至於性命微妙之蘊 即聖學之本領而洞見實大是原 剖析毫縷以詔後人 其開創指導之盛 實是我東之濂翁.”
- 5) 『正祖大王實錄』 卷之四十五, 20年 11月 8日(己酉), “惟卿, 海東濂溪, 湖南洙泗.”
- 6) 具庠製, 「文廟從祀頌教文」, 『河西先生文集』 卷之首, “蔚爲海東正學.”
- 7) 趙希文, 「河西先生全集舊序」, 『河西先生文集』 卷之首, “數歲能爲詩句 意思深遠氣象廣大 已有非人所能及者 七八歲文名大振.”

요약된다. 하나는 ‘문이재도론’이 보편적 문학관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게 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리학적 사유가 문인들의 시적 제재로 채용된 것이다. ‘문이재도론’은 주돈이, 정이, 주희와 같은 송대 학자들에 의해 형성된 문학 이론으로 성리학의 도입과 함께 절대적인 문학론으로 확립되었다. 특히 성리학의 발달이 절정을 이룬 조선조 16세기에는 당대의 대표적 인 성리학자인 서경덕, 이황, 이이, 김인후, 조식 등의 문학 작품에 성리학적 사유가 채용되면서 하나의 새로운 시풍으로 나타나게 되었다.<sup>8)</sup> 이른바 염락풍 시의 등장이다.

염락풍 시는 심성 수양과 의리 실천을 중시하는 유학자들의 시로, 순수한 정감을 읊은 기존의 시와는 구별되는 성격을 지닌다. 염락풍 시란 염락풍의 경향을 띤 시란 뜻이다. 염락은 ‘濂洛關閩’의 줄임말로, 중국 송나라 때 주돈이가 살았던 염계(현 호남성)와 정호, 정이 형제가 살았던 낙양(현 호남성 낙양현), 장재가 살았던 관중(현 섬서성), 주희가 살았던 민중(현 복건성) 가운데, 염계의 ‘염’과 낙양의 ‘낙’ 한 자씩 빌려 이루어진 말로, 성리학을 지칭하는 ‘염락(관민)지학’이란 말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송말에서 원초에 활약한 이학자인 金履祥이, 주돈이 이하 48인의 송대 이학자의 시를 한 데 모아 『濂洛風雅』<sup>9)</sup>라는 책을 편찬하면서, 이들의 시와 같은 특징과 경향을 지닌 일련의 시들을 ‘염락풍’ ‘염락체’ ‘염락시’ 등으로 부르게 되었다. 청나라 때에는 張伯行이 다시 『濂洛風雅』를 편찬하기도 하였다. 김이상본은 주립계로부터 주자에 이르기까지 48인의 작품을 시체별로 분류해 수록해 놓았고, 장백행본은 작자의 연대 상 선후를 살펴 17인의 작품을 수록해 놓은 것이다.

김리상본이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명종 20년(1565)에 순천부에서 『增刪濂洛風雅』를 간행한 것으로 보아, 조선 중기 이전에 김리상본이 유입되어 문인들에게 읽힌 것을 알 수 있다. 책 제목에 ‘增刪’이라는 말이 첨가된 것으로 보아 김리상본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 누군가 증산하여 편찬한 것이다. 이는 조선시대에 성리학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濂洛風雅』에 수록된 시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sup>10)</sup>

염락풍 시는 분명 도학시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도학시란 고도의 논리 체계를 갖춘 사변 철학인 성리학적 사유를 담은 시다. 그러기에 우주와 천지 자연, 만물의 생성과 존재 원리를 궁구하며 인간 존재의 당위적인 규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도학시의 용어에 대해서는 그동안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道學詩, 道學派詩, 理學詩, 理學派詩, 說理詩, 哲理詩 등 여러 가지로 혼용되고 있다. 이러한 용어 사용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오직 ‘도학시’만의 사용을 제시하기도 하나<sup>11)</sup> 염락풍 혹은 염락풍 시란 용어가 오히려 타당하다고 본다.

『濂洛風雅』란 책 이름 자체가 용어와 관련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염락’이란 말에는 이른바 송조5현이라 불리는 주돈이, 정호, 정이, 장재, 주희 등이 살았던 지역적 의미는 물론, 그들을 중심으로 그 밖의 여러 사람들에 의해 쓰인 시의 모형을 지칭한다. ‘풍아’란 말은 『시경』의 「국풍」과 「소아」, 「대아」의 시를 지칭한다. 그러므로 ‘염

8) 홍우희, 「율곡의 도학시 연구」, 『한국고전연구』 6집, (한국고전학회, 2000), 94-95쪽 요약.

9) 『濂洛風雅』란 송말의 이학자 金履祥이 편찬한 것으로, 주돈이 이하 48인의 송대 이학자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작품 수로 보아도 상상을 초월하여 소옹은 1583수, 양시존은 239수, 주희 1318수, 위료용 711수, 김리상 83수, 진덕수 95수, 정호 67수, 육구연 23수, 정이 3수 등이다. 이들의 작품은 양적 질적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특징과 경향을 지닌 송시 중의 독특한 유파다. (송용준 외 2인 『宋詩史』), 270쪽 참조.

10) 변중현, 「고려 후기 염락시풍의 성격」, 『대한한문학』 제 15집, (대한한문학회, 2001), 26쪽.

11) 홍학회, 「한국 도학시 연구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 『한국고전연구』 제10집, (한국고전학회, 2003), 91-192쪽.

락풍 시'란 송조 5현을 중심으로, 비슷한 성향을 지닌 여러 사람들에 의해 쓰인 『시경』의 '風雅'를 모범으로 한 송시의 한 유파라 할 수 있다.

### Ⅲ. 염락풍 시의 특징

중국 문학을 대표하는 장르는 시이고, 시라면 으레 당시를 언급한다. 당시 중의 으뜸인 盛唐 시는 당시 발달의 최고 경지로서 왕유, 이백, 두보, 한유, 백거이, 두목, 이상은 등 뛰어난 시인들이 등장하여 많은 작품을 남겼다. 唐詩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당시는 가슴으로 쓴 시로, 인간의 체취가 물씬 풍긴다. 둘째, 순수한 서정을 중심으로 한다. 셋째, 시로써 시를 지은 순수한 시가이다. 넷째, 美文과 妙文을 추구하여 시의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유미주의적인 성격을 지닌다.

당대를 이은 송대 역시 시가 문학이 크게 발달하였다. 宋詩는 우선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는데, 구양수, 왕안석, 소식, 황정건, 양만리 등과 같은 뛰어난 시인들이 나타나 많은 작품들을 남겼다. 송시는 당시를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더하여 당시와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 첫째, 머리로 쓴 시로 인생에 대한 깊고 담담한 관조와 조망이 담겨 있다. 둘째, 성리학의 영향을 받아 설리적이며, 산문적 성격이 강하고 시풍이 평담하다. 셋째, 산문으로 시를 지은 산문화된 시로 내용과 형식에서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넷째, 작가의 개인 생활과 더욱 밀착된 내용을 담고 있다. 송대 시인들은 특별한 감정이나 아름다운 풍경뿐만 아니라 그들이 일상 생활을 통해 보고 느끼는 조그만 일들까지도 빠짐없이 세밀하게 표현했다.<sup>12)</sup>

염락풍 시는 성리학의 영향으로 설리적, 철리적 경향을 띤 송시이면서도, 다른 송시와도 구별되는 나름대로의 특색을 지닌다.

첫째,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인간의 올바른 성정을 드러낸 시다. 시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상서』 「요전」의, “시는 뜻을 말하고, 노래는 길게 읊는 것”<sup>13)</sup>이다. 이러한 ‘시언지’ 설을 이어, 『모시서』에서는 “시란 뜻이 가는 바다. 마음을 두면 뜻이 되고, 말하면 시가 된다.”<sup>14)</sup> 라고 했다. 여기서의 ‘지’는 ‘사상이나 지향’이란 포괄적 의미를 나타내나, 선진 유학자들의 관점에서는 유가의 규범에 합치되는 사상과 내용을 의미한다.

염락풍 시는 『시경』의 시 중에서 ‘風, 雅, 頌’을 모범으로 한다. 風은 민간 가요로, 연향에 쓰인 의식 가요인 雅나, 제사를 받들 때에 쓰인 頌과는 성격이 다르다. 雅頌이 계층 간의 조화와 통합을 위한 목적적이고 작의적인 노래라면, 風은 가장 자연 발생적이며 순수한 노래다.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감정은 정도를 벗어나지 않을 때 진정한 의미를 지닌다. ‘낙이불음 애이불상(樂而不淫 哀而不傷)’<sup>15)</sup>이라 했다. 어떠한 ‘즐거움’도, 어떠한 ‘슬픔’도 중심을 잃지 않고 본연에 충실해야 한다는 뜻이다. 올바른 심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용의 中正 사상이 필요하다. 인간의 정신 현상에서는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등에 감정 변화가 심하여 중심 잡기가 어렵다. 감정을 중정 상태로 유지한 시가 가장 이상적이다. 그런 시가 『시경』의 시

12) 정민, 『한시미학산책』, (술출판사, 1996), 67-87쪽. 김학주, 『신역 송시선』, (명문당, 2003), 33-60쪽 요약.

13) 「堯典」, 『尙書』, “詩言志 歌永言.”

14) 「毛詩序」, 『詩經』, “詩者 志之所之也 在心爲志 發言爲詩.”

15) 「八佾」, 『論語』, “子曰 關雎 樂而不淫 哀而不傷..”

이고, 그런 감정을 읊은 시가 도연명의 시이며, ‘당시’ 중의 두보의 시이다. 시를 억지로 지으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집착이 없이 자연스런 감정을 드러낸 시가 연락풍 시다.

둘째, 수양 과정과 유교적 가치관을 추구한 시다. 성리학은 인격적으로 완성된 聖人이 되는 것을 학문의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명 ‘聖學’이라고도 한다. 학문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닌, 자기의 잃어버린 마음을 구하는 것이며, 진정한 학문 정신은 이론적 정밀성의 추구가 아닌 인격적 완성에 있다고 여긴다. 그러기에 학문적 관심을 항상 인간의 도덕적인 자기 완성을 추구하는 수양에 둔다. 수양은 心과 敬을 두 축으로 하는데, 심은 수양이 이루어지는 바탕이요, 경은 수양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선비들은 위인지학이 아닌 위기지학, 즉 자아의 완성을 통해 성인이 되고자 끊임없이 수양한다. 연락풍 시는 선비들이 수양하면서 지은 시다.

연락풍 시는 양심, 도리, 이성의 가치관을 추구한 시다. 공자는 수양의 덕목으로 인의예지와 예의염치를 말한 바 있다. 도학시를 알려면 도학자가 되려고 노력하며, 항상 수양하려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순수하고 진실한 인간성의 발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순수하게 만든다. 사람이 순수한 심정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시가 바로 연락풍 시이다.

셋째, 천리를 따르는 사람의 마음을 노래한 시다. 인간의 심성이 무엇이나는 것은 늘 의문의 대상이었다. 성리학에서는 “마음이 곧 리다(心卽理).”라고 하며, 마음을 인심과 도심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書經』 「大禹謨」에,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은미하니, 정밀히 하고 한결같이 하여야 진실로 그 中을 잡을 수 있다.”<sup>16)</sup>라고 했다.

이러한 人心道心論에 대해, 張載는 『正蒙』에서 天理와 人欲으로 규정한 바 있으며, 程頤는 本性和 私欲을 구분하여 인심·도심이 위태롭고 미미한 원인이 私欲에 있으므로, 사욕을 없애면 곧 천리에 밝아진다고 했다. 또한 「四勿箴」 중 ‘動箴’에서, “도리에 따르면 항상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욕심을 따르면 자유스러워 보이거나 항상 위험을 느끼게 된다.”<sup>17)</sup>라고 했다.

성리학은 하늘을 인격화한다. 하늘을 기본적 인격체로 하여 도리, 이성, 양심의 완전무결한 절대적 전범으로 여기며, 하늘을 거울로 하여, 경계하는 자료로 삼는다. 하늘을 닮으려는 사람은 성인이고, 성인을 닮으려는 사람은 현인이며, 현인을 닮으려는 사람은 선비다. 성리학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중심으로 우주, 자연, 사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끝없이 사색하고 탐색하는 철학이다. 연락풍 시는 하늘 자체의 특성을 언어로 표현한 시이고, 하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시이다.

#### IV. 하서 연락풍 시의 특징

성리학자는 문장을 지엽적 기예로 생각한다. 그래서 “道는 본이고, 文章은 末.”이라는 ‘道本文末’ 내지는 “문장은 도를 실는 도구이다.”라는 ‘載道文學論’을 충실히 따른다. 하서 또한 “기송 사장의 학습을 비루하게 여기며,”<sup>18)</sup> “사장은 오래 가지 못하는 것으로, 가을에 앞서 시들고 마는 꽃”<sup>19)</sup>에 비유하기도 했다. ‘도’라는 뿌리가 튼튼해야만, 거기서 자란 꽃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장을 단순히 내용을 표현하는 수단으로만 인식한 주돈이의

16) 「大禹謨」, 『書經』,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17) 程頤, 「四勿箴」, “順理則裕 從欲惟危.”

18) 「家狀」, 『河西先生全集』附錄卷之一, “先生之學 明於爲己爲人之間 崇道德仁義之本 陋記誦詞章之習.”

19) <與虎兒 其二>, 『河西先生全集』卷之五, “詞章非久遠 灼灼忌先秋.”

‘문이재도론’을 절대 불변의 진리처럼 받아들인 것이다. 결코 문을 도외시한 것은 아니나, “사장을 기록하고 외우는 데 골몰하니, 신심의 면에 있어 뉘 오로지 공을 들이겠소.”<sup>20)</sup>라고 하여, 사장에 몰두하는 당시의 세태를 비난하며 도학자로서의 문학관을 견지코자 했다.

하서 시는 대부분 도학과 연결되며, 도학시 가운데서도 염락풍 시의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다. 이는, “선생의 시문은 조년의 작품에는 화평충담의 풍미가 있으며 호방의 기가 있고, 만년의 작품에서는 고명순정을 감각할 수 있는데 이따금 비분강개의 말이 있다.<sup>21)</sup> 라는 문인인 조희문의 평에 나타난다. 아울러 “시문을 제술함에는 평이하고 통창하며 명백하고 간절하여 까다롭고 괴이한 내용이나 크고 화려한 모양으로써 사람들의 이목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韻意와 서술, 음률과 곡조가 온순하고 화평하여 쇠락하고 영롱하여 배워서 될 수 없는 것이다.”<sup>22)</sup>라는 양자정의 평에서도 확인된다. 이는 바로 唐良瑞가 「염락풍아서」에서 “치우치고 막힌 시는 바른 중심에서 발하는 것만 못하니, 放曠이나 悲哀와 우수가 가득한 태도의 시는 화평하고 충담의 음악만 같지 못하다. 그 마음에서 생긴 것은 곧 그 말로 나타나며, 말로 나타나게 되면 곧 그 일을 이루게 되니 관계된 바가 적지 않은 까닭이다.”<sup>23)</sup>라고 언급한 것과 서로 통한다.

성리학은 크게 이기설로 대표되는 우주론, 사단칠정과 인심과 도심,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대표되는 심성론, 격물치지와 성의정심으로 대표되는 수양론 등 세 범주로 나눈다. 하서는 이러한 성리학적 이념을 충실히 견지하며, 일생 동안 추구해 왔던 올바른 삶의 과정을 한시라는 형식을 빌려 표현했다. 일상 생활에 담긴 성리학적 이치를 순수하고 정제된 문학적인 언어로 아로새겼다. 하서의 시는 송조5현을 모범으로 한 염락시 풍을 유지한 가운데, 나름대로 독자적인 성취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 IV-1. 詩經의 風雅論

동양의 전통적 시관은 『尙書』 「堯典」에서 최초로 ‘詩言志’ 설이 제기된 이후, 『毛詩序』의, ‘詩者 志之所之’로 이어지고, 다시 陸機가 『文選』에서 ‘詩緣情’을 제기하면서, ‘시언지’에 대한 인식이 넓어져, 시가 사상뿐 아니라 감정까지도 표현할 수 있다는 서정적 차원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시를 단순히 도덕적 교화라는 효용성을 넘어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인식한 것이다. <sup>24)</sup>

그러나 ‘시언지’에 대한 확신은 절대적이어서 성리학자에게는 ‘재도문학론’으로 나타났다. 주돈이는, “문학이란 도를 신는 것이다. 문사는 기예이고 도덕은 실체이다. 도덕에 힘쓸 줄 모르고, 다만 문사만 능하게 하는 것은 藝에 불과할 뿐이다.”<sup>25)</sup>라고 하였다.

20) <示景范仲明>, 『河西先生全集』卷之七.

21) 「河西先生全集舊序」, 『河西先生全集』卷之首, “早年之作 多和平沖澹之味 而有豪放之氣 晚歲 更覺高明純正 而間有慷慨悲憤之辭.”

22) 梁子激, 『河西全集附錄』卷之一, “其製詩文也 平易疏暢明白簡切 決不爲艱深 詭異之狀 宏衍富麗之態 要悅於人之耳目 而其韻意鋪叙音響節奏 溫粹和平灑落玲瓏 有非可以學而至之夜.”

23) 唐良瑞, 「濂洛風雅序」, 『濂洛風雅』卷之一. “偏滯之辭 不若中正之發 而放曠悲愁之態 不若和平沖淡之音 生於其心 則發於言 發於其言 則作於其事 所關非細故也.”

24) 조기영, 『하서 김인후의 시문학 연구』, (아세아문화사, 1994), 18쪽 요약.

25) 周敦頤, 「文辭」第二十八, 『通書』四, 『周子全書』卷10, “文所以載道也. 輪轅飾而人勿庸, 徒飾也. 況虛車乎. 文辭藝也, 道德實也. 篤其實, 而藝者書之, 美則愛, 愛則傳焉. 賢者得以學而至之, 是爲教. 故曰: 言之無文, 行之不遠. 然不賢者, 雖父兄臨之, 師保勉之, 不學也, 強之, 不從也. 不知務道德, 而第以文辭爲能者, 藝焉而已. 噫! 弊也, 久矣.”

詩道非他本性情: 시의 도는 다름 아닌 성정이 근본이라.  
 吟來善惡各分明: 읊어 보면 선과 악이 각각 분명하네.  
 從容直到和平處: 차분하게 곧장 화평한 데 이르면  
 事物當前理自呈: 사물이 앞에 올 때 이치 저절로 드러나네.  
 <吟示景范仲明><sup>26)</sup>

<吟示景范仲明> 21수 중 15번째 작품이다. 詩道の 바탕은 성정에 있으며, 성정의 바름은 본연의 착한 性에서 출발한다. 『中庸』에서는 “하늘이 명한 것을 性이라 하고, 性에 따르는 것을 道라 하고, 道를 닦는 것을 教라 한다.”<sup>27)</sup>고 했고, 『禮記』에서는, “사람이 나면서 고요한 것은 하늘의 성이요. 사물에 느끼어 움직이는 것은 성의 욕이다.”<sup>28)</sup>라고 하여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연을 성으로, 이러한 성이 사물에 느끼서 움직이는 성의 욕을 정으로 정의한 바 있다. 또한 맹자는 인간의 성정을 惻隱, 羞惡, 辭讓, 是非의 四端과 喜怒哀樂愛惡欲 등 일곱 가지 감정으로 나눈 바 있다.

하서도 性情이 시도의 근본으로, 성정의 천진과 순정은 그 본연의 선한 성에서 출발하여, 성정 자체가 중화를 유지할 때 발현된다고 본 것이다. 이는 시의 효용론적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시를 선을 강조하고 악을 막는 유용한 수단으로 본 것이다.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하는 것이 시인의 사명이다. 주돈이의, ‘재도문학론’을 추종한 것이다. 시도의 순수함과 바름의 전형으로 하서가 선택한 것은 『詩經』이었다.

하서는 『詩經』에 대해, “시경이 경이 된 이유는 그 안에 邪와 正이 있고, 美와 刺가 있으며 俗尙의 아름답고 낫은 것과 정치의 잘잘못과 국가의 흥폐가 모두 갖추어 있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sup>29)</sup>라고 했다. 시경을 통해 인간 성정을 바르게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성리학자들은 『시경』의 시를 이상으로 한다. 하서의 문학 작품도 그 근원은 『시경』의 ‘풍아’에 두고 있다. “그 述作에 있어서는 風雅에 뿌리를 두고, 이소, 문선, 이백, 두보를 참조하여 무릇 감촉된 바가 있으면 일체 시로써 발설하되 맑아도 격하지 않고, 간절해도 급박하지 않고 즐거워도 음란함에 이르지 않고 근심해도 상심함에 이르지 않아, 모두 성정을 다스리고 도덕을 함양한 것이었으며, 그 소장은 통창하고 전아하여 반드시 理勝을 주로 하였으나 참으로 仁義의 말이었다.”<sup>30)</sup>라고 했다. 또한 “일찍이 말하기를, 젊었을 때에 항상 초사와 이백, 두보의 작품을 외우면서, 시경에 유의가 있음을 좋아하여 육예를 익히는 자료로 삼았다.”<sup>31)</sup>라는 기록은 하서 문학의 바탕이 시경과 초사, 문선, 이백과 두보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하서의 시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착은, “시를 배우지 않고는 설 수 없다.”는 공자의 가르침이었다. 이는 “선생 나이 아직 성동이 못 되었는데, 일찍이 공자의 시를 배우지 않고는 설 수 없다는 설을 보고 곧 시경에 나아가 읽었다. 국풍 같은 것은 대문과 대주는 열 번 읽

26) 『河西先生全集』 卷之六.

27) 『中庸』,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

28) 『樂記』, 『禮記』, “人生而靜 天之性也 感於物而動 性之欲也.”

29) 『河西先生全集』 卷之七, “夫詩之爲經 有邪有正有美有刺 而俗尙之美惡 政治之得失國家之廢興靡不畢備.”

30) 宋時烈, 「神道碑銘」, 『河西全集附錄』 卷之一, “其述作 根於風雅 參以騷, 選, 李, 杜 凡有感觸 一於詩發之 清而不激 切而不迫 樂而不至於淫 憂而不至於傷 皆所以理性情 而涵道德 其疏章 通暢典雅 必以理勝 眞仁義之言也.”

31) 梁子澂, 「家狀」, 『河西先生全集附錄』 卷之一, “嘗曰 少時 常誦楚辭及李白 杜甫之作 樂其有三百篇遺意 以爲游藝之資.”

고 소주도 백 번을 읽었다.”<sup>32)</sup>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詩經』 중에서 ‘국풍’에 매료되어 심지어 소주까지 반복해서 읽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공자는 일찍이 『시경』 「국풍」의 ‘주남’과 ‘소남’에 대해, “너는 ‘주남’과 ‘소남’을 배웠느냐? 사람으로서 ‘주남’과 ‘소남’을 배우지 않으면, 담장을 맞대고 서 있는 것과 같다.”<sup>33)</sup>라고 하여 그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주남’과 ‘소남’은 ‘시경 15국풍’ 가운데 맨 처음 등장하는, 내용이나 시풍이 순정한 정풍이다. 다음은 「국풍」 「주남」편을 읽고 난 감상을 적은 <독주남>이란 작품이다.

關雎正家始: 관저는 정가하는 으뜸이거니  
造端君子道: 군자의 도가 예서 시작이 되네.  
禽鳥有眞性: 금조도 참된 성을 지니고 있고  
水荇亦微草: 마름풀 또한 하찮은 풀이 아닌가.  
三章四窈窕: 세 장에 요조가 네 번 나오니  
言近義深造: 말은 가까워도 뜻은 한결 깊구려.  
沈涵仰千古: 침잠하여 천고를 우러러보니  
聲氣如可攷: 어제일 듯 성기를 살필 듯하네.  
周邦命維新: 주나라는 오래된 나라여도 명은 새로워  
穆穆歌文考: 문왕의 은화함을 노래하누나.

<讀周南><sup>34)</sup>

『시경』의 「국풍」 서두에 있는 「주남」을 읽고 난 감회를 읊은 것이다. 그러나 총 11편으로 이루어진 「주남」 전체에 대한 감상이라기보다는, 「주남」의 첫 작품인 「관저」편에 대한 언급에 가깝다. 먼저 ‘관저’가 가정을 바르게 하는 으뜸이자, 군자의 도로 나아가는 바탕임을 밝힌다. 『中庸』에 “군자의 도는 단서가 부부에서 시작되니, 그 지극함에 미쳐서는, 하늘과 땅에 나타난다.”<sup>35)</sup>라고 했다. 부부의 도를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봉우유신’으로 대표되는 유교의 다섯 가지 윤리 규범 가운데 핵심으로 여긴 것이다. 아울러 「관저」편 3장에 걸쳐 ‘窈窕淑女’란 말이 4번이나 등장하는 사실을 통해, 문왕의 비인 태사의 후덕을 칭송한다. 끝으로, 문왕과 태사의 성덕을 바탕으로 한 修身齊家가, 천명에 의한 주나라 건국이라는 治國平天下로 완성되었음을 밝힌다. 마지막 두 구는 문왕의 은화함을 노래한 『詩經』의 “문왕이 위에 계시어, 아 하늘에 밝게 계시니, 주나라가 비록 오래된 나라이나 천명은 새롭도다.”<sup>36)</sup>라는 구절을 연상시킨다. 주자는 『詩經』序에서 ‘주남과 소남’을 「국풍」시의 정도이자 수신제가와 치국평천하의 요체임을 밝힌 바 있다.<sup>37)</sup> 하서의 「국풍」 「주남」에 대한 관심은 <독관저편>이란 작품으로 구체화된다.

32) 「敘述」, 『河西全集附錄』卷之二, “先生年未成童 嘗見孔子不學詩無以立之說 卽就詩經 讀之精熟 至如國風 讀大文 大註十遍 並小註一遍 至於千遍 則小註亦至百遍矣.”

33) 「陽貨」, 『論語』, “女爲周南召南矣乎 人而不爲周南召南 其猶正牆面而立也歟”

34) 『河西先生全集』卷之二.

35) 『中庸』十二章, “君子之道 造端乎夫婦 及其至也 察乎天地..”

36) 朱子, 「大雅」三, 『詩經集傳』卷十六, “文王在上 於昭于天 朱雖舊邦 其命維新.”

37) 朱子, 「序」, 『詩經集傳』, “惟周南召南 親被文王之化以成德 而人二皆篇有以得其獨性情之正 故其發於言者 爲樂而不過於淫 哀而不及於傷 是以二篇 獨爲風詩之正經.”

綿綿王業起岐山: 끊임없는 왕업이 기산에 흥기하여,  
 至于文王德如天: 문왕에게 이르자 하늘 같은 덕이었네.  
 天生聖女洽之陽: 하늘이 성녀를 흡수 남에 낳게 하여  
 窈窕婦德曾無前: 요조한 그 부덕은 전에도 없었다오.  
 造舟爲梁嬪于周: 배 만들어 다리 놓아 주나라로 시집오니  
 國人爭詠關雎篇: 나라 사람 다투어 관저 편을 노래했네.  
 由來夫婦居人倫: 예로부터 부부란 인륜을 차지하며  
 陰比乎坤陽比乾: 음은 곤에 견주고 양은 건에 견줬거든.  
 文王既聖姒又聖: 문왕이 성인이자 태사 또한 성인이라  
 同明竝德家道全: 명과 덕을 같이 하여 가정의 도를 지켰으니  
 赫赫盛化流乾坤: 성한 교화 빛나고 빛나 천지에 흘러가서  
 汝漢陋俗皆相悛: 여수 한수 누한 풍속 서로 다 고쳤구려.  
 天下歸心大命集: 천하 백성 마음 돌려 대명이 모아지니  
 子孫相傳八百年: 자손이 잇고 이어 팔백 년을 전했어라.  
 吾觀興廢由婦人: 나는 보니 흥폐가 부인에게 달렸더군,  
 妹姐入宮邦國顛: 말희 달기 궁에 들자 나라가 넘어졌소.  
 不有懿德徒淫荒: 미덕은 있지 않고 한갓 음탕뿐인지라  
 明眸皓齒空嬋妍: 밝은 눈 하얀 이빨 부질없는 고임이지.  
 如何後王不能承祖武: 어찌하여 뒤 임금은 조상을 닮지 않아  
 僞烽一舉兵戎連: 거짓 봉화 한 번 들자 병화가 잇달았다.

<讀關雎篇>38)

「관저」편이 后妃의 덕을 노래한 것이라는, 유학자적 해석에 입각한 글이다. 먼저 고공 단보가 岐山에 도읍하여 왕업을 일으킨 이후, 손자인 문왕에 이르러 성덕을 크게 베풀게 된 역사적 사실을 말한다. 이어 백성들이 문왕의 비인 태사의 부덕을 칭송하여 ‘관저’를 지었음을 밝힌다. 유가의 이상인 ‘治國平天下’는 바로 ‘修身齊家’에서 비롯된다. 수신은 성정의 올바른데, 제가는 배필을 맞이함에 있다. “부부란 생민의 시작이요, 만복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서, 혼인의 예가 올바른 연후에 품물이 이루어지고, 천명을 온전하게 이루게 할 수 있었다.”39)라고 했다. ‘관저’는 문왕과 태사의 성정의 올바른을 노래했을 뿐 아니라, 이로부터 부부의 윤리와 제가가 이룩되고, 제가를 통해 周의 건국이라는 ‘治國平天下’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점에서 유학의 이상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되었다.40) 뒤이어 작자는, 한 나라의 흥망은 부인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팔백 년을 이어온 문왕의 빛나는 덕화도 태사의 부덕이 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商의 주왕과 西周의 유왕은 악한 여인들로 인해 패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달기와 포사’에 관한 언급은 태사의 후덕을 돋보이게 하려는 작자의 의도다.

‘관저편’은 시경의 시작이자, 시경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시이다. ‘관저’를 짓게 된 동기에 대해, 주자는 “주의 문왕은 태어나면서부터 성덕이 있었고, 성녀 사씨를 맞이하여 배

38) 『河西先生文集』卷之四.

39) 朱子, 召南」卷一, 「國風」, 『詩經集傳』, “配匹之際 生民之始 萬福之原 婚姻之體正然後 物品滲而天命全“

40) 오종일, 『공자학회논문집』, 「시경 관저편과 치국평천하」, (공자학회, 2004), 78쪽.

필을 삼게 되었다. 이 때 궁중 사람들이 그가 처음 오는 것을 보고, 유한 정정의 덕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이 시를 지었다.”<sup>41)</sup>라고 했다.

공자는 ‘관저’에 대해, ‘樂而不淫 哀而不傷’이라 했고, 주자는, “관저는 태어나면서 정해진 짝이 있어, 서로 난잡하지 않고, 짝이 항상 노닐어도 친압하지 아니하므로, 시인이 그 ‘摯而有別’을 취하여 ‘男女正家’의 도를 일으킨 것이다.”<sup>42)</sup>라고 풀이했다. 이어서 “關雎의 시는 后妃의 덕이 마땅히 군자에 짝할 만하니, 구하여 얻지 못하면 자나깨나 생각하며 몸을 뒤척 거리는 근심이 없을 수 없고, 구하여 얻으면 琴瑟과 鐘鼓의 악기로 즐거워함이 마땅하다고 말하였다. 그 근심이 비록 깊으나 和를 해치지 않고, 그 즐거움이 비록 성대하나 그 바름을 잃지 않았다. 그러므로 부자께서 칭찬하시기를 이와 같이 하셨으니, 배우는 자들이 그 말을 음미해 보고 그 음을 살피서 성정의 바름을 인식할 수 있게 하고자 한 것이다.”<sup>43)</sup>라고 평하였다.

하서가 이처럼 시경을 탐독한 까닭은 시경이 인간 성정의 순수함과 바름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시경의 ‘思無邪’ 정신은 바로 이 순수함과 바름의 상징이다. 하서는 시경의 ‘사무사’ 정신을 철저하게 추종하며, 자신의 시 세계의 근본으로 삼았다.

하서의 시경에 대한 남다른 애착은 위의 작품 외에 <독소남> <독위풍> <독왕풍> <독정풍> 등과 같은 작품을 남긴 사실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대다수의 염락풍 시인은 ‘시경’을 전범으로, 가장 자연스런 시를 쓴 도연명과 두보를 숭상한다. 하서도 도연명을 사모하여 <독귀거사>란 동일한 제목의 작품 두 수<sup>44)</sup>를 남긴 바 있다.

疏麻寂歷蓼花秋; 성긴 삼 쓸쓸한 여뀌꽃 핀 가을을 맞아  
雨漲前川釣石頭; 앞 내에 물이 불어 돌 위에서 낚시하네.  
不信野人生計少; 초야 사람 생계가 박하단 말 믿지 않소.  
畫圖煙景足風流; 그림 같은 연경에 풍류가 넘치는 걸  
〈魚巖雜詠 其二十 雨後〉<sup>45)</sup>

<魚巖雜詠>란 시제의 20수 중 마지막 작품이다. 거주지인 순창의 ‘魚巖’<sup>46)</sup>이란 곳에서 느낀 흥취를 절제의 미덕을 발휘하여 쓴 작품이다. 여름날 절정을 이루던 삼이 철이 바뀌며 쓸쓸함을 더한 가운데, 여뀌 꽃만이 가을을 맞아 활짝 피어 있다. 여뀌는 흔히 수료(水蓼), 택료(澤蓼), 천료(川蓼)라고 불리는 식물이다. 마치 곡식처럼 다닥다닥 매달려 꽃으로 보이지 않지만, 작은 알갱이 하나하나가 꽃이다. 다른 꽃처럼 화려하지 않으면서, 가을 바람에 흔들거리는 모습은 단순한 풀이 아닌, 뭔가 생각하는 듯한 사람을 연상시킨다. 예로부터 동양의 은은한 멋을 지닌 풀로 여겨져 『시경』에도 이에 관한 시가 자주 등장한다.

기구의 ‘疏麻寂歷’는 柳宗元の <田家三首> 중 제2수의 ‘疎麻方寂歷’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으며, ‘蓼花秋’는 제3수의 ‘蓼花被堤岸’의 분위기를 떠오르게 한다.

41) 朱子『詩經集傳』「國風」「召南」卷一 “朱之文王 生有聖德 又得聖女如氏 以爲之配 宮中之人 於其始至 見其有幽閒貞靜之德 故作是詩”

42) 朱子『詩經集傳』卷一 周南一之一.

43) 朱子『詩經集傳』卷一 周南一之一.

44) 『河西先生全集』卷之四.

45) 『河西先生全集』卷之四.

46) 『河西先生全集』「續編外錄」卷之一「年譜別本」에 따르면, 하서 나이 39세 되던 봄 아버이를 모시고, 순창 고을 점암촌에 우거하여, 점암 위에 초당을 세우고, 훈몽으로 편액을 걸고 학생들에게 강론했다고 한다.

작자는 물이 불어난 시냇가에서 한가로이 낚시하는 즐거움을 만끽하며, 야인의 살림살이가 어렵다는 말은 믿을 수 없다고 반문한다. 그림과 같은 아름다운 경치가 눈앞에 가득 펼쳐져 있으니 부러울 게 없다는 것이다. 고려 시대 崔冲의, “뜰에 가득한 달빛은 연기 없는 촛불이고, 자리에 든 산 빛은 청하지 않은 나그네라. 게다가 솔바람 소리 악보 없는 곡을 타니, 다만 소중히 여길 뿐 남에겐 전하지 못하네.<sup>47)</sup>”란 시와 정서가 닿아 있다. 경물을 통해서 성정을 함양하고, 자연의 이치를 터득하려는 면모가 돋보인다.

一雨新催樹上花: 한 번의 비가 새로 나무 위 꽃을 재촉하니  
 春光次第向繁華: 봄빛은 차근차근 변화로 치닫는구나.  
 鷄鳴鳥喚柳條弱: 닭 울고 새 지저귀며 버들가지 흔들거리는데  
 山靄和煙漲萬家: 산안개 집 연기 어울려 온 마을에 넘실대네.  
 <雨中卽事><sup>48)</sup>

먼저 만물을 生成 化育하는 봄비에 대한 기쁨, 내리는 빗속에 펼쳐지는 경물의 변화와 자연의 조화를 즉흥적이면서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제 비가 그치면 봄은 더욱 무르익게 되고, 나무 가지에는 아름다운 꽃이 필 것이다. 마치 杜甫의 <春夜喜雨> 중의 “좋은 비는 계절을 아는지라. 봄을 맞아 내리는구나(好雨知時節 當春乃發生).”를 연상시킨다.

이어 저마다 하늘로부터 받은 품성을 거슬리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다. 닭은 울어 대고 새는 지저귀며 버들가지는 바람과 함께 흔들거린다. 비가 그치면서 피어오르는 산안개는 마을의 연기와 어울려 온 마을에 가득하다. 분명 작자는 봄비 후에 더욱 싱싱하게 소생할 만물의 모습을 상상하리라. 빗속의 풍경을 마치 도연명의 전원시처럼 산뜻하고 싱그럽게 그려내고 있다. 특히 모든 구마다 청각적 효과와 시각적 효과를 교묘하게 살려냄으로써 예술적 즐거움을 선사한다. 작은 경물의 묘사로부터 대자연의 이치를 발견해내는 도학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有興裁春服: 흥이 나서 봄옷을 만들었으니  
 無妨作晚遊: 늦도록 노닌다 해도 무방하리라.  
 周家觴曲水: 주공은 곡수에서 잔을 띄웠고  
 晉客詠清流: 진객은 청류에서 시를 읊었지.  
 陌上紅方嫩: 길가에 붉은 꽃이 한창 예쁘고  
 郊邊綠政柔: 들판엔 푸른 풀이 흔들거린다.  
 浴沂當日意: 기수에서 목욕한 그 날의 뜻을  
 回想轉悠悠: 돌이켜서 생각하니 한가하여라.  
 <上巳踏青><sup>49)</sup>

踏青節이라 불리는 ‘삼월 삼짇날’을 맞아, 춘흥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연 속에 노니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중국에서는 삼짇날이 되면 ‘踏青’이라 하여 봄에 파랗게 돌아난 풀을 밟으며 산책하는 것을 즐겼다. 문인들은 이 날이 되면 함께 모여 굽이쳐 흐르는 물결에 잔을

47) 崔冲, <絶句>, “滿月月色無煙燭 立座山光不速賓 更有松絃彈譜外 只堪珍重未傳人.”

48) 『河西先生全集』卷之六.

49) 『河西先生全集』卷之九.

떡우며 시를 짓고 노니는 잔치를 벌였다. 이를 ‘曲水流觴’이라 한다. 작자는 문득 『論語』 중 ‘欲沂與點’의 고사를 떠올린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각자의 뜻을 말하라 하자 뜻이 고상한 증점이 말하기를, “늦봄에 봄옷이 이미 완성되었으면 관을 쓴 사람 5, 6명과 어린아이 6, 7명과 함께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우에서 바람을 쏘이며 노래하면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공자께서 감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나는 증점의 뜻을 허여하노라.”<sup>50)</sup>라고 하였다는 이야기다.

인간의 본원과도 같은 자연이란 공간 속에서 새로운 절기를 즐기고, 한편으로는 명리를 잊고 욕심 없이 자연의 순리에 따르고자 하는 도학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생동감 있게 그려져 있다.

#### IV-2. 居敬宗經의 修養論

유학자들은 성인을 전형으로 삼아, 평생을 두고 성인에 이르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했다. 이는 조선시대의 많은 선비들이 성인의 도를 따르는 학문인 聖道之學을 추구했다는 사실로도 입증된다. 하서는 도학, 절의, 문장을 모두 갖춘 백세의 스승으로서 누구보다도 자신의 심신을 수양하는 데 최고의 가치를 두었다.

흔히 성리학을 세 가지 측면에서 언급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수양론이다. 성리학자들의 학문 수양 방법에 '居敬窮理'가 있다. 이는 程頤가 제창하여 주희가 완성시켰으며, 조선시대 이황에 의해 계승된 것이다. 사물의 도리를 하나하나 밝혀내고, 여기에 일관하는 天理를 발견하려는 것이다. 格物致知와 비슷하나, 엄밀한 의미로는 거경은 수양면에, 궁리는 인식면에 관련된다.

『近思錄』에, 수양은 모름지기 敬으로써 하여야 하고 진학은 치지에 달려 있다.”<sup>51)</sup>고 하였다. ‘거경’이란, 主一無適으로써 마음을 한 군데에 집중하여 잡념을 버리는 것으로, 내면적인 집중만이 아니고 외면적으로도 엄숙한 태도를 말한다. ‘궁리’란, 이른바 격물치지이며, 그 방법으로는 博學, 審問, 慎思, 明辨, 篤行을 제시한다. 거경과 궁리는 수례의 두 바퀴와 같고, 또 사람의 두 발과 같아 함께 있어야 비로소 인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程頤도 “경을 유지함으로써 안을 곧게 하고, 의를 행함으로써 밖을 바르게 하는 것은 인이다.”<sup>52)</sup>라고 강조하였다. “군자는 경을 주로 하여 그 안을 곧게 하고, 의를 지켜 밖을 방정하게 한다. 경이 서면 안이 바르게 되고, 의가 드러나면 밖이 방정하게 된다. 의는 밖으로 드러나지만 밖에 있는 것은 아니다.”<sup>53)</sup> “敬과 義가 서고 나면 그 덕이 성대해져서, 크게 됨을 기약하지 않아도 커지게 되니 덕이 외롭지 않다.”<sup>54)</sup> “안은 곧고 밖은 반듯하며 경과 의를 함께 길러 그 덕이 자연히 성대하므로 외롭지 않다.”<sup>55)</sup>라는 말들은 경과 의를 중시한 것으로, 경과 의를 통해 인이 실현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하서도 “敬이 서면 모든 邪는 물러가는 법, 知가 참되면 만 가지 이치 갖추어지네(敬立群邪去 知眞萬理該).”라고 하여, 敬을 통해 邪를 물리치고 正을 회복하며 참된 知를 얻어 萬理

50) 『先進』, 『論語』, “點 爾何如 鼓瑟希 爾舍瑟而作 對曰 異乎三子者之撰 子曰 何傷乎 亦各言其志也 曰 莫春者 春服既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 夫子然歎曰 吾與點也.”

51) 『爲學』, 『近思錄集解』, “涵養須用敬, 進學則在致知.”

52) 『存養』, 『近思錄集解』, “敬以直內 義以方外 仁也.”

53) 『爲學』, 『近思錄集解』, “君子主敬而直其內 守義以方其外 敬立而內直 義形而外方 義形於外, 非在外也.”

54) 『爲學』, 『近思錄集解』, “敬義既立, 其德盛矣 不期大而大矣. 德不孤也.”

55) 『爲學』, 『近思錄集解』, “內直外方 敬義交養 其德自然盛大 故曰不孤也.”

가 밝혀질 수 있다고 믿었다. 敬은 聖學의 始終을 이루고, 身心內外에 모두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서가 생활과 학문, 문학에 있어 일관되게 敬을 爲主로 한 것은 그의 이 같은 도학자적 인식과 자세에서 비롯된다.

氣質雖千萬: 기질이야 천 가지 만 가지지만  
初來共本然: 처음에는 모두 다 본연의 天性.  
工夫惟一敬: 공부는 오직 敬 한 글자일 뿐  
上達可參天: 상달하면 하늘에 참여하느니.

<贈張甫><sup>56)</sup>

<贈張甫>란 시제의 10수 중 9번째 작품이다. 기질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본연의 천성은 다름이 없다. 사욕에 빠져 천연의 기질을 잃지 않으려면 경 공부를 멈춰서는 안 된다. 『周易』 「건괘. 문언」에, “경으로써 안을 곧게 하고 의로써 밖을 반듯하게 하는 것(敬以直內義以方外).”이라고 했다. 이는 곧 마음을 곧게 하는 것은 敬을 통해서 가능하며, 마음 밖의 일을 반듯하게 처리하는 것은 義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다. 마음의 안팎을 경과 의로써 다스려야만, 도덕적으로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敬 공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잡는 것이 필요하다.

爲學如撐上水船: 공부란 물 거슬러 배를 젓기와 같은 것  
一篙纔緩便廻遭: 노를 한 번 늦추면 이내 뒤로 밀려나네.  
悠悠泛泛終難濟: 다잡지 않으면 건너기가 어려우니  
要似飢餐渴飲然: 배 주릴 때 밥을 먹듯 목마를 때 물 마시듯

<吟示景范仲明 其三><sup>57)</sup>

<吟示景范仲明>란 시제 21수 중의 하나다. 여기서 강조한 ‘공부’는 단순히 글공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글을 읽고 외우며 쓰는 공부는, 진정한 의미의 학문은 아니다. ‘지행’이 일치되어야만 진정한 학문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단 하루도 이를 게을리 할 수 없다. ‘노를 한 번 늦추면 이내 뒤로 밀려나는 것’과 같이 퇴보하고 만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급선무다. 진정한 수양은 학문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학문의 요체는 게으른 마음을 방지하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이다. “학문이란 탄 길 없고 마음에 달렸으니, 내친 것을 거둔다면 어찌 어렵다 하리.<sup>58)</sup>”라고 했다.

不分生困竟歸知: 생지 곤지 구별 마소, 지에 가면 마찬가지.  
聖道雖遐學可追: 성인의 도 멀다지만 잘 배우면 따라가네.  
更合勿忘而勿助: 부디 잊지를 말고 또한 조장도 말며  
且防怠忽亘孜孜: 나태한 마음 방지하여 쉴새없이 부지런히.

<勸學><sup>59)</sup>

56) 『河西先生文集』 卷之五.

57) 『河西先生文集』 卷之六.

58) <示仲明>, 『河西先生文集』 卷之七, “學問無他只在心 放來收斂豈艱深.”

59) 『河西先生文集』 卷之七.

기질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성인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면, 누구나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음을 말한다. 기구의 ‘생곤’은 공자가 사람의 자질을 네 등급으로 분류한 데서 비롯된 말이다. 『論語』 「季氏」 편에, “나면서 저절로 아는 사람은 최상이요. 배워서 아는 사람은 그 다음이요. 막힘이 있어도 애써 배우는 자는 또 그 다음이다. 그러나 모르면서도 배우지 않는 사람은 하등이 된다.”<sup>60)</sup>라고 했다. 生知, 學知, 困知, 下愚를 지칭한다. 또한 ‘生知學知困知’란 말은 『中庸』의 “혹 나면서 달도를 아는 자가 있고, 혹 배워서 달도를 아는 자가 있으며, 혹 곤란을 겪어 달도를 아는 자가 있으나, 그 달도를 아는 것에 이르러서는 한결같은 것이다. 혹 편안히 달도를 행하는 자가 있고, 혹 이롭게 여겨 달도를 행하는 자가 있으며, 혹 힘써 달도를 행하는 자가 있으나, 그 달도의 공을 이롭게 이르러서는 한결같은 것이다.”<sup>61)</sup>에 나타난다.

주자는 이를 풀이하여 “知之의 아는 바와 行之의 행하는 바는 달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 나눔으로써 말을 하면, 아는 것은 知가 되고, 행하는 것은 仁이 되며, 아는 것의 공을 이롭게 이르게 되는 것이 勇이다. 그 등급으로써 말을 하면, 즉 나면서 아는 것과 편안히 행하는 것은 知가 되고, 배워 알고 이롭게 여겨 행하는 것은 仁이 되며, 곤란을 통해 알고 부지런히 행하는 것은 勇이 되는 것이다. 사람의 본성은 착하지 않음이 없으나, 기품이 같지 않음으로 도를 들음에 빠르고 늦음이 있으며, 도를 행함에 어렵고 쉬움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능히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으면 그 이름은 똑같은 것이다.”<sup>62)</sup>라고 했다.

전구의 ‘勿忘而勿助’란 말은 맹자의 ‘揠苗助長’이란 고사를 인용한 것으로,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일화에서 비롯한다.

반드시 그것(호연지기)을 일삼되 그 결과를 앞당기려 기약하지 말고, 마음으로 잊지 말고 일을 꾸며서 자라도록 도와서는 안 된다. 宋나라 사람처럼 하지 말아야 한다. 宋나라 사람이 자기가 심은 모가 빨리 자라지 않는 것을 민망히 여겨 모를 뽑아 올려 주었다. 그가 바삐 집으로 돌아와 말하기를, ‘오늘 나는 병이 날 지경이다. 내가 모가 자라는 것을 도와주었다.’ 라 했다. 그 아들이 달음질하여 가보니 모가 모두 말라 있었다. 이 세상에는 싹을 미리 뽑아 올리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적다. 이익이 없다고 내버려 두는 사람은 김매지 않는 사람이다. 억지로 자라게 하는 사람은 싹을 뽑아 올리는 사람이다. 비단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로운 것이다.”<sup>63)</sup>

순리를 거슬러 인위로 벗모를 키우려 하면 성장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그 성장을 방해하듯, 학문이란 반드시 정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매사가 그렇듯 학문에 있어서도, 집중해야 하지만 무리하게 성과를 올리려 해서도 안 되는 것임을 경계하는 말이다.

하서는 “한결같은 고충 직절도, 역시 학문 속에서 나온 것을 알겠네(惟終始孤忠直節 亦自學問中出來).”라고 했다. 수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문이 바탕이 있어야 하며, 학문의

60) 「季氏」, 『論語』, “孔子曰 生而知之者 上也 學而知之者 次也 困而學之 又其次也 困而不學 民斯爲下矣.”  
 61) 『中庸』 第二十章, “或生而知之 或學而知之 或困而知之 及其知之之一也 或安而行之 或利而行之 或勉強而行之 及其成功一也.”  
 62) 朱子, 『中庸章句』 第二十章, “知之者之所知, 行之者之所行, 謂達道也. 以其分而言, 則所以知者 知也 所以行者 仁也, 所以至於知之成功而一者 勇也. 以其等而言, 則生知安行者 知也, 學知利行者 仁也, 困知勉行者 勇也. 蓋人性 雖無不善, 而氣稟有不同者, 故聞道有蚤莫(早暮), 行道有難易, 然能自強不息, 則其至一也.”  
 63) 「揠苗」, 「公孫丑」上, 『孟子』, “必有事焉而勿正 心勿忘 勿助長也 無若宋人然 宋人 有閔其苗之不長而揠之者 芒芒然歸 謂其人曰今日病矣 予助苗長矣 其子趨而往視之 苗則槁矣 天下之不助苗長者 寡矣 以爲無益而舍之者 不耘苗者也 助之長者 揠苗者也 非徒無益 而又害之.”

요체는 敬에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시를 통해 四書三經을 비롯한 경서에 대한 지식을 넓힐 것을 강조했다. 하서는, “『大學』이란 한 권 책은 평생의 본령이라. 큰 공부는 『大學』에 들어 있으니, 남아가 이 밖에 또 무얼 구하리.”<sup>64)</sup>라고 하여 『대학』을 배울 것을 역설한다. 程顥는 ‘대학’을 공자학파의 전통 속에 살이 있는 책이자, 초학자가 덕의 길로 나아가는 문이라고 했다. 『대학』은 유교의 근본 이념과 정치 이상을 포괄하여 정연하게 요약한 개론서로, 선비들에게 몸을 닦는 수양서로 널리 읽힌 책이다. 하서의 大學에 대한 관심은 주자가 지은 『대학강의』를 보고 「대학강의발」을 지었다는 사실로도 확인된다.

從前理會詩兼易: 전부터 시경 주역 이해도 했지만은  
 得力無如語孟多: 힘 얻음은 논어 맹자 같은 게 없더군.  
 此是晦翁端的語: 이는 바로 회옹의 단적인 말일진대  
 也先大學用功過: 제일 먼저 대학에 힘을 쓰고 넘어가야.  
 <吟示景范仲明><sup>65)</sup>

<吟示景范仲明>란 시제 21수 중 17번째 작품이다. 하서가 『대학』 다음으로 우선한 것은 『논어』이다. 이는 『논어』가 공자의 언행, 공자와 그 제자들과의 문답 등을 통해 인생의 교훈이 되는 말들을 간결하고도 함축성 있게 기록한 儒家의 聖典인 까닭이다.

說與兒童魯叟書: 공자님의 논어를 애들에게 이르노라  
 聖門蹊逕此由於: 성문에 들자면 이 책이 지름길일세.  
 若將句句存心養: 만약 구절구절을 마음 깊이 새긴다면  
 明善何難復我初: 선을 밝혀 본성 찾기 뜻이 어려우리.  
 <七言絕句 示小子><sup>66)</sup>

『논어』를 聖門에 들어가는 지름길로 본 것이다. 그러기에 구절구절을 마음에 깊이 새긴다면 선을 밝히고,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前略  
 童蒙須知小學書: 아이들은 모름지기 소학 책을 알아야 해  
 一敬已該心性情: 공경이란 한 글자가 심, 성, 정에 다 맞는걸.  
 良知不待學而能: 배우지 아니해도 능한 것은 양지거니  
 眞切豈外親與兄: 어머니와 형제 벗어나서 眞切이 있을쏘냐.  
 天下達道由此出: 천하의 달도는 이로부터 나오나니  
 近思一編詳且精: 근사록 그 한 편이 정하고도 자상커든.  
 丁寧剖析訓子詩: 자식 훈계하는 시를 정녕히 분석하면  
 莫不自卑登崢嶸: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지 않음 없네.  
 章分句解字明訓: 장 나누고 구절 풀이하고 글자는 훈을 밝혀

64) <與虎兒 其二>, 『河西先生文集』, “大學工夫在 男兒莫外求.”

65) 『河西先生文集』 卷之六.

66) 『河西先生文集』 卷之六.

宮室大開洪鐘鳴: 궁실이 크게 열리고 홍종이 울리누나.  
 撐舟莫放一篙緩: 배를 버틸 적엔 샷대를 느슨히 놓지 말고  
 上泝洙泗波粼粼: 넘실넘실 수사 물결 거슬러 나아가게.  
 <次贈梁甥仲明韻>67)

四書三經을 포함한 어느 경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서는 유난히 『小學』에 애착을 가졌다. 그 까닭은 크게 두 가지로 추정된다. 그 하나는 스승인 모재 김안국과의 인연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훤당 김굉필은 평생 『소학』을 손에서 놓지 않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며 스스로 ‘小學童子’라 칭했던 인물이다. 제자인 모재 또한 그러한 스승의 영향으로 『소학』의 교육과 보급에 힘썼으며, 친히 『소학언해』를 간행하기도 했다. 하서가 『소학』을 강조한 또 다른 까닭은, 『소학』이 주자가 편찬한 책으로, 형이상학적 사변을 다루지 않고 일상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유교 덕목을 주된 내용으로 한 데 있다고 하겠다.

#### IV-3. 性理學的 宇宙論

하서의 사상은 정자, 주자의 학설에 바탕을 둔 정주학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졌다. 정주 체계의 성리학설을 기본 이론으로 하고, 이와 다른 이론이나 학설은 배척했다. 불교나 도교와 같은 다른 사상은 말할 것도 없고, 같은 성리학이라 하더라도 심학이라 불리는 양명학 등은 철저히 외면했다. 결국 하서는 정주의 이기론만을 따랐다고 할 수 있다.

하서는 「주역관상편」, 「서명사천도」, 「천명도」 등을 저술했다고 하나, 현재는 「천명도」만이 전하고 있다. 비록 성리학과 관계된 저술을 남기지 않았지만, 전하고 있는 많은 시 작품을 통해 그의 성리학적 우주관이나 세계관, 인성관 등을 추정할 수 있다. 하서의 시 세계를 성리학적 관점에서 고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리학적 우주론에 대한 견해부터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우주 만물의 근원은 주립계의 ‘太極’, 장형거의 ‘太虛’, 정호의 ‘天理’, 정이와 주자의 ‘性과 理’다. 이들 태극, 태허, 이, 성은 우주 만물의 궁극에 있는 관념상의 근원일 뿐 형상도 냄새도 없다. 천지 만물의 형체적인 존재의 바탕은 태극에서 나온 음양의 기다. 만물의 근원인 태극에서, 음양의 두 기운이 생겨나고, 음양이 교합하여 五行이 생겨난다. 우주 만물은 근원인 태극과 형상을 이루는 음양의 기로 이루어져 있는 셈이다. 주자의 말로 하면 理와 氣다.

惟萬彙之稟生兮: 온갖 종류들이 태어날 적엔  
 受天命之正性: 하느님이 명해 준 정성 받았네.  
 具健順與方寸兮: 건순과 오상을 갖추었으니  
 寔二五之所併: 이야말로 이오의 어울림이라.  
 諒純善而無雜兮: 진실로 순선이요 섞임 없어서  
 渾至理之沖融: 혼연한 지리의 충융이라네.  
 然通塞而正偏兮: 그렇지만 통색과 정편이 있네.  
 由氣質之不同: 기질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67) 『河西先生文集』 卷之四.

人得秀而最靈兮： 빼어난 기질 받아 사람 가장 신령하지만  
 尙智愚之有差： 그래도 지와 우의 차가 있구려.  
 苟脫累而開蔽兮： 누를 벗고 가림이 열린다면  
 斯聖途之可階： 성인이 되는 그 길을 오르고말고.  
 雖非堯舜之性之兮： 요순 같이 성대로는 못한다지만  
 湯武反而有餘： 탕무의 돌아옴엔 남음이 있네.  
 在學問而思辨兮： 배우고 묻고 생각하고 분변을 하여  
 日乾乾而復初： 날로 끊임이 없으면 복초가 되네.  
 要操心而存誠兮： 마음을 굳이 잡고 성을 지니면  
 可柔強而愚明： 유가 강해지고 우가 밝아지느니  
 豈強事於分外兮： 어찌 분수 밖의 일에 애를 쓸 건가.  
 推所知而乃行： 아는 것을 미루어 행하는 걸세  
 順當然之帝則兮： 당연의 제척만을 순히 한다면  
 物各止其所止： 물마다 제 그칠 데 그치느니라.  
 將是道而設教兮： 이 도를 가지고서 가르침 만들어  
 自不遠而伊邇：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여  
 盡人物而參天地兮： 인물에 극진하고 천지에 참여하니  
 亦豈但乎成己： 이 어찌 자기만을 이룬다 하리.  
 後略

<復性賦><sup>68)</sup>

성리학은 한마디로 우주론이자 인성론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작품은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다루고 있다. 먼저 우주 만물의 근원과 이치를 성리학의 이기론 입장에서 기술한 다음, 수양의 핵심인 인성론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리학의 우주론은 궁극적으로 인성론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만물의 근원인 태극에서, 음양의 두 기운이 생겨나고, 음양이 교합하여 수, 화, 목, 금, 토의 五行을 생성하는 과정을 설명한 데 이어, 선한 성이 기질에 의해 선악으로 나뉘며, 통색과 청탁과 지우가 드러나는 과정을 밝힌다.

정이는 理가 인간에 들어와 性이 되고, 氣는 인간에 들어와 才가 된다고 하였다. 理는 만물의 본체로 純善하니, 사람의 성 또한 모두 선하여 악한 것이 없다. 그러나 氣에는 淸濁과 正偏이 있으며, 사람의 才에는 智慧와 愚鈍이 있고, 賢明과 不肖가 있는 것이라 하였다.

주자는 인간의 심성을 本然之性和 氣質之性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본연지성’은 理요 善이나, ‘기질지성’은 타고난 기질에 따라 청탁과 정편이 있어, 반드시 선한 것만은 아니고 때로는 악하게도 된다. 情은 반드시 악한 것만은 아니지만 때로는 선하지 못할 수도 있다. 즉 기질을 맑게 타고난 사람은 그 정이 선하게 되나, 탁하게 타고난 사람은 그 정이 악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사람에 따라 淸濁·智慧 등의 차별이 있으나, 인간의 노력과 수양에 따라 愚가 智로도 변하고 濁을 淸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하서는 글의 화제를 우주론에서 인성론으로 전환하며 자연스레 수양의 문제를 제기한다. 『書經』과 『詩經』에서는 천지와 인생을 관통하는 理法이나 법칙을 上帝의 道라고 했으며, 『中庸』과 『大學』에도 천도나 천명에 대한 설이 나타난다. 이 천도를 畏敬하고 이를 실현

68) 『河西先生文集』 卷之一.

하고자 하는 마음이 ‘修養論’의 연원이 된다. 수양은 원래 『書經』의 단계에서는 天子에만 해당되었으나, 공자가 이것을 일반인에게까지 확대했다. 그래서 『大學』에서는 이것을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모두 수신으로써 근본을 삼는다."<sup>69)</sup>라고 표현했다. 공자는 수양을 강조하고, 이를 배움이라고 불렀다. 그는 학문이란 성인이 되는 것을 배우는 것이며, 그것은 일상적인 의식주 생활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 수양의 방법에 대해서 『易經』에서는 窮理盡性으로써 命에 따라 천명·천도에 합치하는 생활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中庸』에 의하면 수양은 다름 아닌 眞實無妄의 誠에 이르려는 ‘誠之者’의 과정이다.

위 賦의 주제인 ‘복성’이란 사람이 타고난 본성 또는 誠이 현실 생활에서 인욕과 물욕에 가려져 있으므로, 그 본래의 모습인 천리·천도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타고난 본래의 誠을 돌이키는 것이 곧 복성인데 여기에는 敬이 필수적이다.

복성 곧 ‘誠之者’를 위해서는 선을 가리어 굳게 지키는 ‘擇善而固執’이 중요하다. 그러면 柔가 강해지고, 愚가 밝아진다고 했다. 정호는 『周易』을 인용하여 形狀이 없는 것을 道理라 하고, 형상이 있는 것은 器라 한다. 하늘의 도리는 음·양이요, 땅의 도리는 柔·剛이요, 인간의 도리는 인·의라 한다. 비록 천·지·인의 삼재가 음양·강유·인의로 다른 것 같으나 도리에 이르러서는 모든 것이 귀일된다고 하였다. 이 賦는 이러한 성리학의 요소들을 담아 심성 수양의 길을 명시하고 있다.

太極無極妙: 태극이라 다함이 없는 묘한 이치는  
 流行宇宙間: 우주 사이에 늘 유행하거니  
 俚俚誰與問: 외로운 몸 누구와 더불어 물으리오,  
 日夕待君還: 밤낮으로 그대 돌아오길 기다리노라.  
 <又寄><sup>70)</sup>

태극이라는 말은 『周易』 「繫辭傳」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태극이란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원인이 없는 궁극적인 본원을 뜻한다. 『周易』에선 태극을 만물의 근원, 우주의 본체로 보고, “태극은 兩儀(음양)를 낳고, 양의는 四象을 낳고, 사상은 八卦를 낳고 팔괘에서 만물이 생긴다(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라고 하였다. 이러한 우주론을 계승하고 여기에 五行說을 가하여 새로운 우주론을 수립한 것이 북송의 유학자 주돈이의 「太極圖說」이다. ‘태극도설’은 만물 생성의 과정을 ‘태극-음양-오행-만물’로 보고 또 태극의 본체를 ‘無極而太極’이란 말로 표현하였다. 그 본체는 無聲無臭한 것이므로 이를 무극이라 하는 동시에, 우주 만물이 이에 조화하는 근원이므로 ‘태극’이라 한다고 하였다.

주자는 ‘無極而太極’을 해석하여 태극 외에 무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만일 무극을 빼놓고 태극만을 논한다면 태극이 마치 한 물체처럼 되어서 조화의 근원이 될 수 없고, 반대로 태극을 빼놓고 무극만을 논한다면 무극이 空虛가 되어 역시 조화의 근원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무극과 태극은 떼어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有가 곧 無이며, 절대적 무는 절대적 유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주자는 천지도 하나의 태극이요, 만물 하나하나가 모두 태극이라 하였고, 이 태극에서 음양으로의 移行은 태극의 動靜에 의하는 것이며, 동정은 곧 음양의 두 기운을 내포하고 있어, 만물의 근원적인 생성이 전개된다고 하였다.

69) 『大學章句』一章, “自天子 以至於庶人 壹是皆以修身爲本.”

70) 『河西先生文集』卷之五.

靜愛周翁圖太極: 고요하니 주렴계의 태극도를 애완하고  
 閒尋邵子問漁樵: 한가하니 소강절의 어초문대 찾아보네.  
 須知天地生生意: 모름지기 천지 만물 끊임없이 생기는 뜻을 알면  
 不廢窮冬萬木凋: 한겨울 온갖 나무 시늬를 내치지 않으리라.  
 <次德茂韻 其二><sup>71)</sup>

하서는 “성명 음양의 심오는 저 태극도와 귀취를 같이하네.”<sup>72)</sup> 라고 하여 자신의 성리학 적 견해가 ‘태극도설’에 근거함을 밝힌 바 있다. 북송의 학자인 濂溪 주돈이는 불과 250자의 「太極圖說」로 정주학을 연 송학의 창시자요, 도학의 개조이다. 「太極圖說」은 주돈이가 도가의 수련도인 ‘무극도’를 이용하여 仁義禮智를 설명한 유가의 秘傳으로, 『周易』 「繫辭傳」의 태극과 『老子』 28장의 무극을 통합한 것이다. ‘漁樵問對’는 송대의 성리학자인 康節이 지은 것이다. 邵雍은 邵康節 또는 邵堯夫라고 하는데, 성리학의 이상주의 학파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여러 번 관직을 제수받았으나 모두 마다하고, 河南 교외의 초라한 은둔처에서 친구들과의 교유와 명상으로 세월을 보냈다. 『周易』을 연구하면서 數가 모든 존재의 기본이라는 象數學 이론을 만들었던 사람이다. 이 사상은 후에 모든 성리학파에 의해 받아들여졌으며, 12세기 송나라에 들어서며 주자에 의해 관학 이론의 일부가 되었다.

理本於天欲起形: 이는 천에 근본하고 육은 형에 일어나니  
 公私交戰汨虛靈: 공과 사가 서로 싸워 심령을 어지럽히네.  
 從今寤寐知存省: 아무쪼록 자나깨나 보존하고 성찰하며  
 戒懼無時不喚醒: 계구하여 수시로 일깨워야 하느니라.  
 <示門人 其二><sup>73)</sup>

理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본래 선한 존재다. 모든 사람은 선한 본연지성을 가지고 태어나나, 현실적으로는 욕망에 의해 흔들리면서 본연의 성을 잃게 된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본연지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한 존재이다. 나아가 원칙적으로 모든 인간은 본연지성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다. 본연지성은 ‘仁義禮智信’이라는 도덕 규범을 가리킨다.

하서는 성현의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이고, 배우고 익히며 자기의 덕을 닦으면 성현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天理의 보존과 인욕의 억제를 통해 公과 義를 추구하고 私와 利를 멀리 하며, 본연의 성을 잃지 않기 위해 늘 성찰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역설한다.

## V. 맺음말

이상에서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성리학자로, 도학과 절의, 문장을 모두 갖춘 백세의 스승으로 추앙되며, 문묘에 배향된 유일한 호남인인 하서 김인후 시의 염락풍적 특징에 대해 살펴 보았다.

71) 『河西先生文集』 卷之七.

72) 「文廟從祀教書」, 『河西先生全集』 卷之一, “性命陰陽之奧 物乎太極圖同歸.”

73) 『河西先生文集』 卷之七.

엽락풍 시란 송조5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설리적 경향의 시로, 일반적인 송시와도 구별되는 독특한 특색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인간의 올바른 심성을 드러내는 시이고, 수양 과정과 유교적 가치관을 추구한 시이며, 천리를 따르는 사람의 마음을 노래한 시란 점이다.

하서는 전형적인 성리학자로서 ‘문장은 도의 말’이라는 ‘도본문말’ 내지는 ‘문장은 도를 신는 도구’라는 ‘재도문학론’을 충실히 따르며, 성리학적 이치를 정제된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독특한 문학적 성과를 이루었다. 하서의 문학 작품에 나타난 엽락풍 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詩經』의 風雅論이다. 하서는 성리학자로서 『詩經』의 ‘풍아’를 시의 전형으로 여겼다. 이는 『詩經』이 인간의 순수하고 진솔한 감정을, 모자라거나 지나침이 없이 표현한 까닭이다. 그는 『詩經』의 「風雅」를 전형으로 하여, 풍아 중의 으뜸인 「周南」, 「召南」과 관련된 작품과 「주남」의 서두에 해당하는 「關雎」 편 등을 독후감 형식으로 남겼다. 또한 경물시의 형식을 빌려 성정을 함양하고, 대자연의 이치를 발견해내는 도학자의 모습을 그려냈다.

둘째, 居敬宗經論을 바탕으로 한 修養論이다. 하서는 학문을 통한 심신의 수양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다. 그는 敬에 바탕을 두고, 사서삼경을 비롯한 유교의 경전을 독서의 대상으로 한 학문 수양을 통해 평생 동안 성도지학을 추구했다. 경서 중에서는 『大學』을 앞세우고, 『논어』와 『맹자』를 비롯한 유교의 경전을 두루 학습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小學』을 중시했다. 이는 『小學』이 주자가 직접 편찬한 책이란 점과 스승인 모재 김안국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性理學的 宇宙論의 표현이다. 하서는 「天命圖」외에는 성리학에 관한 저술을 거의 남기지 않아 성리학적 견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작품을 통해 드러난 성리학적 우주론은 인성론의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성리학 이론에 관해서는 대부분 주희의 이기론을 따르고 있으며, 주렴계의 「太極圖說」에 관련된 시나 인성론과 관련된 시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 참고 문헌

- 『國譯河西全集』(上, 中, 下), 하서선생기념사업회, 1987.  
기세춘, 『성리학개론』(上, 下), 바이북스, 2007.  
김경호, 『불교사상연구』 제 28집, 「진정성 회복을 위한 수양론의 두 유형」, 한국유교학회, 2007.  
김정수, 『전라도 사람들』(6), 장문산, 2009.  
김학주, 『공자의 생애와 사상』, 명문당, 1997.  
김학주, 『신역 송시선』, 명문당, 2003.  
송용준, 오태석, 이치수, 『宋詩史』, 역락, 2004.  
오종일, 『공자학회논문집』, 「시경 관저편과 치국평천하」, 공자학회, 2004.  
정요일, 『漢文學批評論』, 집문당, 1990.  
조기영, 『河西金麟厚의 詩文學研究』 아세아문화사, 1994.  
주희, 여조겸 편저, 엽채 집해, 이광호 역주, 『근사록집해』(1, 2), 아카넷, 2004.

진래 지음, 이종란 외 2명 옮김, 『주희의 철학』, 예문서원, 2002.

『河西金麟厚의 思想과 文學』(第 1, 2, 3, 4輯), 재단법인하서학술재단, 2006~2010.

홍우희, 『한국고전연구 6집』, 「栗谷의 道學詩 研究」, 한국고전학회, 2000.

홍학회, 『한국고전연구 10집』, 「한국 道學詩 연구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 한국고전학회, 2003.

Abstract

Lianluo-poetic Style appeared in the Poetry of Haseo Kim Yin-hoo

Kim Dong-ha

Haseo Kim Yin-hoo was one of the most distinguished Neo-Confucianist in the middle period of Chosun Dynasty. He has been respected as a permanent teacher all endowed with ethics, fidelity, and writing. Furthermore, he is the only person local to Honam Province commemorated in the Confucian Shrine as one of the 18 wisest men from Sinla Kingdom through Chosun Dynasty. Significantly he was brilliant in moral philosophy. So, he was praised as a Zhou Lianxi of Chosun or Confucius of Honam Province.

Above all, Haseo was a gifted writer. He had shown a talent for literature from just childhood around age of five. In fact, he was a great poet writing about 1600 pieces of poetry written in Chinese-characters, and an eminent leader playing a key role in Honam literary circles in 16th century. His poetic works had a variety of literary characteristics transcending the literary style and formation. Some poetic works have free Tang-poetic style, while others have ideological Song-poetic style.

However, Haseo was a typical Neo-Confucianist rather than a poet or a writer. As a result, most of his poetry has a tendency towards moral philosophy. They are, a sort of Song-style poetry, that is, Lianluo-poetic Style poets. He thought that the literature is a trifling skill. So, he always faithfully followed the theory of Dao-containing literature that literary works contain a Confucian ideology and concepts mainly asserted by Zhou Dunyi and four virtuous gentlemen of the Song Dynasty in China.

This paper is divided into three parts. First, I will look into the notion and origin of Lianluo-poetic Style. I will compare the difference between Tang-poetic style with Song-poetic style. Second, I will compare Haseo's Lianluo-poetic Style with other Neo-Confucianists' poetry. This will be done using 3 categories; the Fengya theory of 'the Book of Odes', the cultivation of one's mind theory through the four books and the three classics, and Cosmology theory of Neo-Confucianism. Finally, I will discover the unique characteristic of Haseo's Lianluo-poetic Style.

key words : Lianluo-poetic Style, Ideological Song-poetic style, Neo-Confucianist,

Fengya theory of 'the Book of Odes', The cultivation of one's mind theory,  
Cosmology theory of Neo-Confucianism.

